장성군 황룡강 일대는 가을이면 황화코스모스 등 꽃들을 배경을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남도 제공〉

향기 가득한 가을…쉬엄쉬엄 꽃길만 걸어요

▲화순 남산공원에서 펼쳐지는 국화향연 축제는 야간 경관도 꾸며져 밤에 걷기에도 제격이다.

◀영광 불갑산 일대는 매년 가을이면 붉디붉은 상사화(꽃무릇)로 타오른다. 상사화 군락지 일대는 걷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푸짐한 길이다.

▼보랏빛으로 가득한 신안 퍼플섬은 가을이면 또 다른 보랏빛 향기로 채워진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아스타국화꽃축제는 섬의 특징을 돋보이게 뿜어낸다. 〈전남도 제공〉

청정 힐링의 땅
전남이 뜬다

〈12〉 시니어에게 활력 줄 전남 여행지

상사화·아스타국화꽃 축제 등 꽃들의 손짓에 가을 정취 물씬

남도한바퀴와 관광명소 구석구석 피크닉·힐링 등 취양맞춰 코스 다양

100세 시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즐기며 사는 60~70대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다. 특히 70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의 즐거움을 즐기려는 요구가 크다. 고된 인생길을 달려온 70대가 꽃길 가득한 제 2의 인생에 활력을 줄 '전남 여행지'로 어디가 좋을까. 부담없이 살짝만 집을 나서도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느낄 전남 여행지가 많다.

◇**남은 인생, 꽃길만 걷자**=마스크 사이로 얼굴에 닿는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는 시기, 전남의 가을은 '집콕'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곳곳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는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던 전남 여행 기록을 업데이트할 때이기도 하다.

이맘때 영광으로 발길을 돌리면 붉은 상사화(꽃무릇)를 따라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대에서 열리는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는 330만㎡에 달하는 붉디붉은 상사화가 장관을 이룬다.

장성 황룡강 꽃길은 전남의 가을 낭만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3.2㎞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백일홍·황화코스모스를 따라 황룡강길을 걷다보면 한 두 시간이 훌쩍 지난다. 10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황룡강 가을 꽃 축제'가 열리는데, ▲별빛장성(공간전시) ▲감성장성(문화공연) ▲함께장성(체험 및 참여) ▲같이장성(축제 연계행사) 4개 테마에 따라 30여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신안 퍼플섬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 신안 아스타국화꽃 축제로 여행객들을 맞는다.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선정한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2021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퍼플섬 아스타 꽃 축제는 퍼플섬 주변과 아스타정원에 심어진 50만주의 꽃으로 가을의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퍼플섬에서 오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왕새우축제는 다양한 왕새우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강진만은 갈대를 따라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로 국내 최대 생태서식지다. 갈대 군락지는 탐진강 하구와 강진만이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좌우 20만평에 달한다.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를 비롯하여 각종 철새 집단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갈대 뿐 아니라 10만㎡ 규모의 코스모스 꽃밭, 강진만 생태공원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남포호 전망대는 젊은 여행족이 '좋아요'를 연거푸 누르는 '히든 강진'이기도 하다.

강진만 일대에서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강진 힐링 버스킹 공연 ▲7080 추억여행 체험관 ▲강진만 가을국화 기획전시 ▲오르골 만들기 체험 등 음악을 들으며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화순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공원도 숨겨진 꽃길이 많다. 국화 뿐 아니라 핑크뮬리와 들풀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 풍경이 느껴지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 일대에서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리는 화순국화향연에는 국화, 나비바늘꽃, 억세 등 6종 27만주에 달하는 꽃들이 여행객들을 맞는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가을철 대표적 핑크뮬리 명소다. 이맘때면 국립나주박물관 옆과 나주 신촌리 고분군 주변으로 만발하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를 보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마한문화축제는 ▲마한도구 만들기, 금동관 만들기 등 마한 문화 체험행사 ▲가을꽃 인생샷포토존, 마한기념사진 체험, 세계전래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남도한바퀴로**=장거리 운전은 고령인 70대 여행객들에겐 다소 부담이다. 그렇다고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추천하는 여행상품이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다. 남도한바퀴 코스는 전남 곳곳의 안심하고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 위주로 구성한데다, 버스로 이동하는 만큼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고흥(수도암~거금생태숲), 구례·하동(화엄사~섬진강~화개장터), 담양·순창(관방제림~체계산출렁다리), 순천·여수(선암사~낙안읍성~여수 낭도여산마을), 신안보랏빛여행(천사대교~김환기고택~퍼플교), 여수 베니스여행(오동도~수산시장~계동 두문마을), 고흥 쑥섬여행(나로도항~쑥섬), 가을 숲속의 힐링여행(해남 송호해변~포레스트수목원~흑석산치유의 숲), 보성차밭피크닉(대한다원~봇재아트밸리) 등 전남 곳곳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도 다양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